



### 5.31 지방선거 포천시장 후보 초청 정책토론회 / 5. 자유발언

#### 기호1번 열린우리당 서장원 후보

**“일자리 창출정책으로 낙후된 포천경제를 살리겠다”  
“살기 새로운 포천, 좋은 포천을 만들겠다”**

#### 기호2번 한나라당 박윤국 후보

**“시민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  
“시민과 함께 포천시를 이끌어 가겠다”**

#### 기호6번 무소속 홍찬기 후보

**“장성아카데미 벤치마킹하여 희망찬 포천을 가꾸겠다”  
“희망찬 포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



▶**사회자** : 후보자 발언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청객 질문시간을 가졌습니다. 답변해 주신 후보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순서인 후보자별 자유발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후보에 배정된 시간은 3분이 되겠습니다. 3분 내에 어떤 내용든지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습니다. 발언시간은 3분으로 2분 20초가 지나서 초인종이 울리고 10초가 지나면 마이크를 끄고 발언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장원 후보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여러분께서 평가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새로운 시대에 포천이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갈지를 우리는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 사람은 포천을 사랑하는 마음, 깨끗해야 하고, 경제를 알고 시대를 알 수 있는 눈을 가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과 항상 얼굴을 맞대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발로 뚫어야 합니다. 시민들과 만나기 위해 밤잠을 잊고 추위를 잊고 살아 왔습니다. 포천 시민들의 미래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선택, 새로운 사람을 원하신다면 저 서장원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박윤국 후보** : 먼저 시민과 함께라면 뭐든지 자신 있게 일을 하였습니다. 지난 4년 동안은 도시 기반을 갖추었다. 지난 4년 동안은 도시 기반을 갖추었다. 이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계획하고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준비 단계는 출발의 시기고, 두 번째 단계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시적인 지역경제 중장기적인 지역경제 활동을 위해서 총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지만 포천이라는 이 도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도시였습니다. 군사시설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개발적으로 모든 것이 중지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으로 많은 각종 법규로 제약을 받았으나 이런 난제를 슬기롭게 잘 헤쳐 나가면서 바로 포천시정만이 시정을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800여 공직자와 그리고 시민과 저와 함께 삼위일체가 돼서 이끌어 가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지방은 역

시 오케스트라라고 생각합니다. 연주자가 있어야 되고 또 지휘자가 있어야 되고 관객이 있어야 만이 훌륭한 하모니를 연주해 내듯이 지방은 바로 커뮤니티입니다. 공동체란 뜻입니다. 지방자치의 근본을 바로 시민과 함께 하는 이런 시를 이끌어 가는데 총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미흡했던 점이라든가 부족했던 점은 다시 재선이 된다면 이것을 계기로 해서 개선하고 보완해서 정말 전국의 234개 지방자치 단체 중에서 가장 훌륭한 지방자치단체로 만드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회자** : 다음은 박윤국 후보 차례입니다. 시간은 3분이 되었습니다. ▶**한나라당 박윤국 후보** : 먼저 시민과 함께라면 뭐든지 자신 있게 일을 하였습니다. 지난 4년 동안은 도시 기반을 갖추었다. 이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계획하고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준비 단계는 출발의 시기고, 두 번째 단계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시적인 지역경제 중장기적인 지역경제 활동을 위해서 총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지만 포천이라는 이 도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도시였습니다. 군사시설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개발적으로 모든 것이 중지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으로 많은 각종 법규로 제약을 받았으나 이런 난제를 슬기롭게 잘 헤쳐 나가면서 바로 포천시정만이 시정을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800여 공직자와 그리고 시민과 저와 함께 삼위일체가 돼서 이끌어 가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지방은 역

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구 5만도 안 되는 조그만 시골 군, 장성군이라고 있습니다. 장성군의 군수는 세 번이나 연임을 하면서 매주 한번씩 공무원, 새마을지도자 남녀, 각급 군의 지도층을 대상으로 군수가 직접 참석한 자리에서 세미나를 열어 사회개발, 환경, 영농, 각분야를 서술해서 온 전문가들과 매주 한번씩 빠지지 않고 전직 총리, 전직장관, 전직 국회의원, 전직 대학교수, 대학총장 그분들이 망라돼 있습니다. 1년에 56자로 하면 3년이면 얼마입니까? 세 번의 임기동안 두 번인가 빠지고 군수는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서울의 모든 분들이 장성군을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달라면 예산지원이 막 내려옵니다. 언제나 사회를 이끄는 주체는 아직도 그렇지만 공론입니다. 각급 지도층을 전 반 복교육을 해서 지금처럼 먹고 즐기는 분위기가 아니라 즐겁게 신나게 일하는 포천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장성 아카데미를, 장성군을 벤치마킹해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갈 것이고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 순차적으로 배낭여행을 시키겠습니다. 머리를 고쳐야 됩니다. 마인드를 고치지 않고서는 오늘의 정채된 포천을 새로운 분위기로 끌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박윤국 후보께서는 그 팜플렛에 나와있는 걸 보니까 제가 알파벳 실수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잠자는 도시 포천을 일깨우겠다고 하셨습니다. 4년 동안 재임 중에 포천을 잠자는 도시로 방기하셨다면 그건 분명히 직무유기입니다. 왜 이제 와서 잠자는 도시를 깨우셨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장성 아카데미에 한번이라도 벤치마킹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 포천시민은 한 사람만 쳐다보고 장난감처럼 어린애처럼 놀 때만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까. 포천시장은 포천을 이끌어가는 말로만 CEO가 아니라 포천주식회사의 사장입니다. 세일즈맨입니다. 이해야 합니다. 맘 흘러야 합니다. 낙후되고, 정체되고, 퇴화하는 포천이 아닌 희망찬 포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린우리당 서장원 후보** : 이 토론에 참석하여 포천을 사랑하는 포천을 아끼는 각 후보님과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느낀 점이지만 여러 후보님께서 가지고 계신 공약 내용들을 들으며 앞으로 포천시는 날이 발전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이 됩니다. 우리 낙후된 포천시를 살릴 경기시장 후보 서장원입니다. 통일시대에 포천이 갖춰야 할 역할을 하기를 바라고 지역발전 원인에 지역의 시민들의 숙원사업을 모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 이번에는 우리 포천에서 15만 시민들 가운데 선택받은 세분들을 위해서 우리 방청객 여러분께서 수고하셨다고 큰 박수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신문사가 주최한 5.31 지방선거 포천시장후보 정책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후보님들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실시되어 향후 4년 동안 포천시정을 이끌어 갈 일꾼을 선출해 시의 통합은 물론 포천시 발전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리 하승원 기자 form65@paran.com

▶**사회자** : 다음은 홍찬기 후보님 차례입니다. 시간은 3분이 되었습니다. ▶**무소속 홍찬기 후보** :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장성 아카데미를 읽

▶**사회자** : 이번에는 우리 포천에서 15만 시민들 가운데 선택받은 세분들을 위해서 우리 방청객 여러분께서 수고하셨다고 큰 박수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신문사가 주최한 5.31 지방선거 포천시장후보 정책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후보님들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실시되어 향후 4년 동안 포천시정을 이끌어 갈 일꾼을 선출해 시의 통합은 물론 포천시 발전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리 하승원 기자 form65@paran.com

▶**사회자** : 이번에는 우리 포천에서 15만 시민들 가운데 선택받은 세분들을 위해서 우리 방청객 여러분께서 수고하셨다고 큰 박수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신문사가 주최한 5.31 지방선거 포천시장후보 정책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후보님들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실시되어 향후 4년 동안 포천시정을 이끌어 갈 일꾼을 선출해 시의 통합은 물론 포천시 발전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리 하승원 기자 form65@paran.com

▶**사회자** : 이번에는 우리 포천에서 15만 시민들 가운데 선택받은 세분들을 위해서 우리 방청객 여러분께서 수고하셨다고 큰 박수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신문사가 주최한 5.31 지방선거 포천시장후보 정책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후보님들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실시되어 향후 4년 동안 포천시정을 이끌어 갈 일꾼을 선출해 시의 통합은 물론 포천시 발전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리 하승원 기자 form65@paran.com

포천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 동영상은 포천신문 홈페이지(www.ipcs21.com)에서 볼 수 있다.

## 안전은 생명입니다!

- 교통사고 보다 높은 산업재해 사망률 -

# 이제는 줄여야 합니다!

1,105 만 근로자 중  
2,493 명 사망

4,700 만 인구 중  
6,563 명 사망

안전한 산업현장, 건강한 대한민국!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4,700만 국민 가운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6,563명이었고, 산업현장의 1,105만 근로자 가운데,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2,493명 이었습니다. 산업재해 사망자의 발생비율이 교통사고보다 약 2배나 높은것입니다. 산업현장의 사망재해는 노사의 안전실천과 우리사회의 관심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